

신약수기(다음의 글은 “주부편지”에 실린 글을 그대로 실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고교 1년생의 남학생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업군인의 아내로 강원도 산골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아버지 부대 이동을 따라 옮겨간 교회(양구의 중앙교회)에서 주의 몸되신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중앙교회는 제적 23명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성전이 어찌나 낡고 피폐해져 있었는지 어머니께서는 그 교회에 첫 출석하신 날부터 가슴이 찢기는 것처럼 아프셨답니다.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 교회 형편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으나 오직 믿음으로 밤에는 철야기도, 낮에는 심방하며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어찌나 열심이었는지 옆집의 유찬 어머니는 전도하는 어머니가 밋다고 이사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사간 분의 기도까지 끊이지 않고 하시면서 개울가에 나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자갈과 모래를 모으고 시멘트를 사다가 블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외롭게 일하시는데 유찬 어머니께서 한달 후 느닷없이 찾아오시어 무슨 일인지 어머니가 보고싶어 왔다면서 최추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깟 최추 디스크 교회 나와서 자갈 나르는 리어카 몇 번만 끌면 나아요”라고 무심히 말씀하셨는데 이튿날 유찬 어머니께서 정말 리어카를 끌러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니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자갈을 나르시면서도 “하나님! 유찬 어머니 낮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철야하셨답니다.

이튿날 유찬 어머니께서 아이처럼 수건을 휘두르시고 나오시며 “영웅 엄마, 나 나왔어. 허리가 나왔어!” 소리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눈물로 감사하셨고 그후 유찬 아버지께서도(감찰부에 계셨는데) 차량동원에 기술자 지원까지 해주시고 아이들까지 나와 일손을 돕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 형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꾸러 가게 아니하셨고, 그해 10월에 교회가 완성되고 큰 은혜 가운데 기념예배를 드리는데 23명밖에 안되었던 성도들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는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88년도 고입 학력고사에서 만점으로 전국 수석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이다음 신학대학에 갈 계획이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똑똑히 인식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금년 제대를 하시는 아버지께서 신학공부를 하신 후 농촌 목회를 하실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며 아름다우신지요! 할렐루야!

- 청담동 박영용 올림 -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b>City 한인교회</b>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1권 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 8월15일
☎(64-9)298-6464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 목사님!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아도 그 증거가 남는지요?

### 지은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아도 그 증거가 남는지요?

성경공부를 하다가 고린도후서 5:10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말씀을 읽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거듭난 후 그때 그때 지은 죄를 자백해서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악한 일에 대한 증거가 남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10의 심판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엡2:8-9). 그러나 믿는 사람의 행위는 평가를 받습니다. (살전 1:3). 선한 행위는 상과 칭찬을 받을 것이고(고전 4:5), 악한 행위가 많은 경우는 구원은 받되 “불 속을 지나가듯”할 것이라고 합니다(고전 3:15, 골 3:25).

거듭난 후 범한 죄를 자백했을 경우, 요한일서 1:9에 의하면 용서받으며, 동시에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지고(시 103:12), 바다 속에 집어넣어 다시는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렘 31:20).

‘용서받은 죄의 증거가 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도 기억이란 것이 있으니까 용서를 받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는 자체가 증거이듯이 증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용서받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위안과 평화를 얻습니다.

(김상복 목사의 “속 시원한 상담”의 글을 상담란에 연재합니다)

# 주 일 예 배

- \*묵 도  
Silence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 \*용서의 선언  
Proclaim
- \*찬 송 24 장  
Hymn
-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 \*사 도 신 경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 찬 송 98 장  
Hymn
- 기 도  
Prayer
- 성 경 봉 독 마 2:1-12 , 눅 2:1-20  
Scripture Reading
- 복 음 송 가 사랑의 송가  
Praising
- 설 교 “예수의 나심(2)”  
Sermon
- 설교후 기도  
Prayer
- 찬 송 101 장  
Hymn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 \*헌 금 기도  
Offertory Prayer
- \*응 답 송 “좋은신 하나님”  
Response Song
- \*위탁의 말씀
- \*축 도  
Benediction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 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1		김 정 훈	한 건	안은주/김성국
8	김 성 국	지 윤 수	지 윤 수	김 효/지윤수
15	지 윤 수	한 건	한 건	안은주/한 건
22	*	지 연 희	지 윤 수	김 효/지윤수
29	*	김 효	한 건	안은주/김성국

- 오후 1:30
- 다 같이
- 인 도 자
- 다 같이
- 아 동 부
- 다 같이
- 지윤수 집사
- 다 같이
- 김성국 목사
- 다 같이
- 인 도 자
- 다 같이
- 인 도 자
- 김성국 목사

## 교 회 소 식

1. '99년도 교회표어인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를 함께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신 앙: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 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2. 교회 등록은 3주 동안을 예배와 친교참석을 통해 그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등록안내와 규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에는 자유로운 판단을 위하여 등록을 권하지 않습니다.
3.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4. 이번주 금요일은 구역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구역예배목표: 기도회와 성도의 교제  
시간: 금요일 저녁 7:30 장소:  
어린이: video 성경이야기
5. 예배를 위해 올겐 & 피아노 반주자를 기다리며 기도하여 주십시오.
6. 기초성경공부 \*지윤수 집사 : 수요일 오전 10시  
\*안은주, 김 효 : 목요일 저녁 7:00
7. 등록하신 성도께서는 성경공부교재를 가져가시면서 공부일시 약속을 바랍니다.
8.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 교회 전용 예배실과 사무실을 위해(1층 Hall)  
2) 토요일 저녁 family service(토요일에 드리는 온가족 예배)의 시작과 찬양팀 구성을 위해
9. 9월 방학기간에 가질 신앙캠프를 위해 좋은 장소(캠핑장)를 알고 계신 성도의 정보를 기다립니다.(1-2시간 거리이내)
10. 9월 예배위원(기도, 친교, 안내)을 감당하실 성도의 자원함을 기다립니다.(봉사와 섬김 자원서 사용)
11. 이사합니다.  
\*김성국 목사. 262-3717. 48 Earnslaw Cr. Manuker